

2022.12.21.
충남도청 대회의실

현 경제 상황, ‘23년 전망 및 이슈 점검



CONTENTS

목차구성

01

대·내외 경제상황 및 충남경제 상황

- 1-1 대·내외 경제상황
- 1-2 충남경제 전망
- 1-3 2023년 충남도 주요 경제정책

02

2023년 주요 이슈 및 충남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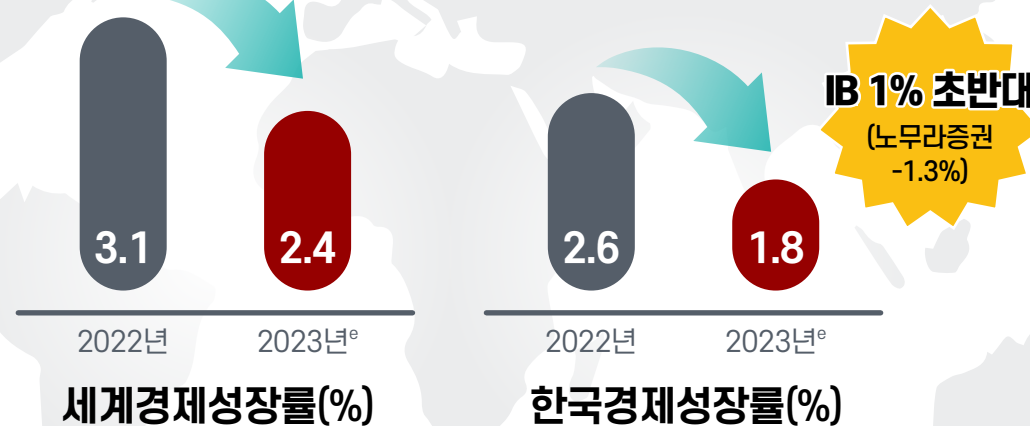
- 2-1 차이나 리스크
- 2-2 탄소중립 & 친환경경제 가속화
- 2-3 기업 자금난 악화
- 2-4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4대 악재’로 高물가·低성장 속 글로벌 경기 침체

4대 악재

1.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 강화
2. 中 제로코로나로 경기 부진
3.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4. 미·중 갈등

2023년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 흐름 악화 전망



* IMF, OECD, 한국은행 3개 기관 추정치 평균

2023년 충남 성장률 1.5% 내외로 경기침체 우려

하방 요인

3高(물가·금리·환율) 지속 | 국제유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 | 주요국 보호무역 강화

산업생산

(2015=100, 계절조정, 전월대비)

생산

112.0

0.9%

출하

109.2

-0.1%

재고

134.4

-5.0%

물가

(2020=100, 전년동월대비)

총지수

110.1

5.5%

생활물가

111.8

5.7%

충남경기심리지수

(전월차)

체감

91.2

0.8P

전망

95.8

-1.0P

수출입

(백만불,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8,498

-5.4%

수입액

3,934

18.2%

고용

(%·천명, 전년동월차·비)

고용률

67.1

1.7%P

취업자수

1,283

6.9%

* 부문별 지표 시점 : 산업생산(10월), 물가(11월), 수출입(10월), 고용(10월), 충남경기심리지수(11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조직개편 맞춘 '민선 8기 충남산업경제 발전전략' 수립·실행

**미래성장산업
육성**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바이오 산업 첨단화 등



탄소경제선도



에너지 전환·산업구조
개편 선도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특별도 위상 확대 등

**선순환
시장경제 강화**

중소기업 등 튼튼한
성장 사다리 지원

산업전환기
고용·인재 육성 강화

투자·통상 기반 강화
(첨단산업 유치, 해외사무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脫중국화

한국기업 베트남·인도로 이탈 시작

‘코로나 봉쇄’로 한국기업 피해 확산

국내 4대 은행 중국지점 대출 연체 잔액 :
2019년 → 2022년 3배 급증

美·EU 중국 의존도 낮추기 시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3년 시행

EU 유럽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선언



한국무역협회, 2022년 10월 기준 누계

충남 주력산업 수·출입도 직·간접 영향 우려



충남 대중국 수출 비중

주요 품목 : 메모리반도체, OLED

* '15년 43.9% → '19년 29.3%

1위
23.2%

충남 대중국 수입 비중

주요 품목 : 무기화학품, 자동차부품

* '15년 11.6% → '19년 10.8%

2위
9.7%

‘중국 경제환경 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정책 방향

정부 역할

- ✓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및 주요 전략물자 관련 공급망 대응
- ✓ 중국 이탈 해외 자본·기업의 국내 유치 지원

충남도 대응 방향

중국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전담 지원체계 구축 운영

01	02	03
脫중국 기업 충남도내 유치	투자·통상 다변화	중국 수출입 기업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KOTRA·무역협회 등과 공조 강화로 현지 지원체계 강화	유럽과 아시아 등 시장 다변화 추진	공급 다변화를 위한 원자재별 수입처 리스트 관리, 무역보증 보험 지원 등

현황 및 문제점

‘탄소 집적지’ 충남

탄소 多배출 산업 집중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입지 공정 전환 통해 **배출 감소 필요**

최대 화력발전 생산지

전국 58기 가운데 27기 위치
발전용량 전국의 48%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정유

급격한 脫석탄화는 지역 공동화, 일자리 문제 대두

» **수소경제 육성 필요**

‘정부와 연계한 대규모 수소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방향

정부 역할

-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 ✓ 충남 서해안 지역(보령, 당진, 서산 등) 대규모 수소혁신 특화단지 조성

충남도 대응 방향

수소발전전략을 충남도와 기초단체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재구상

01	02	03
충남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기초단체 ‘수소경제’ 발굴	기존 전력 인프라 활용 친환경 발전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조성 및 신산업 발굴 육성	남부지역에 방산산업과 산업단지 규모 확대	기존 구축된 송전선, 변전소 등 자원을 정부계획과 연계 암모니아 발전(~2030), 수소발전(~2035)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 우려

고금리 기조 지속

美 금리 인상 지속 전망

국내 금리 인상 내년까지 지속 전망

신용경색 심화

건설·발주 자금난 다른 산업에 파급

충남도내 기업 이자부담 상승



소상공인 대출 증가하고 상환부담 증대

충남 패널조사 부가조사, 2022년 10월 기준

충남
소상공인

10명 중 4명 코로나19로 추가 대출 실행

대출
보유자

10명 중 6명 향후 상환에 부담

‘소상공인 간접 지원 및 중소기업 직접지원 강화’

정책 방향

정부 역할

- ✓ 대내외 금융 리스크 (금리·신용) 관리
- ✓ 채권시장 안정화 등 유동성 위기관리 강화

충남도 대응 방향

정부 지원 소외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차별화된 정책 지원

0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1 퇴로(폐업·재창업→크레딧 제도) 지원
- 2 재교육 후 취·창업 지원
- 3 디지털 마케팅 지원

02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 1 기업 상황별 맞춤형 정책의 패키지화
- 2 정부 정책자금+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자리 왜곡 현상' 심화



빈일자리수
증가
26.9%



채용 인원
감소
-12.5%



이직자
감소
-11.5%



* 월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22년 10월 기준)

'인력 수급 불일치' 심화



대기업 선호
현상 심화



중소기업·저숙련
일자리 기피



충남 직업계고
졸업자 24.6%
미취업 상태



기업의
인력 유치경쟁 심화

고급인력은
일자리 수요 부족

청년층 인재유출

* 2021년 순유출 : -2,183명

‘현장형·고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청년인구 정착 유도’

정책 방향

정부 역할

- ✓ 지역 고용정책 재원의 유연한 분배
- ✓ 자치단체 자율성 부여로 효율성 제고

충남도 대응 방향

현장중심 인력 수급과 수요 대응형 인재육성 ‘트리플 전략’ 수립

01

현장중심 인력 수급체계 확보

- ① 현장형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 ② 인식개선과 정보전달 강화

02

도내 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신설·운영

- ① 각 대학별 경쟁력 갖춘 분야에 대해 통합·공동교육
- ② 협회·학회 등 중간조직 활용

03

청년층 인재유인 정책 강화

- ① 청년채용기업유치및지원확대
- ② 청년거주 및 생활공간 조성·지원 강화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